

국보관

일본영이기(日本靈異記)

국보

904년에 쓰여진 이 사본은 『일본영이기』라는 책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이 책은 787년부터 824년에 걸쳐 승려인 교카이(생몰년 미상)가 쓴 것으로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116편의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종교적, 도덕적 교훈을 주는 민담이나 신화, 전설을 모아 놓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설화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일본영이기의 사본은 단편적으로 5점이 남아 있을 뿐이며 그 중에서 이 사본을 포함한 가장 오래된 2점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